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디모데후서 3:15-17
2026년 5월 3일 오전 11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주여 도우소서>

출애굽 1 세대는 태어나보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유를 얻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지만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출애굽 2 세대는 태어나보니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은 만나 밖에 없었고 물은 늘 부족하였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2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출애굽 3 세대는 태어나보니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였고 넉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풍요 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 2:10). 여기서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세대로 출애굽 2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 40 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였지만 모세로부터 말씀을 배운 세대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 출애굽 2 세대에게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 그러나 출애굽 2 세대는 말씀 교육에 소홀히 한 결과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입은 것을 생각하며, 자식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 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전달’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거듭거듭 들려주지 않은 결과는 끔찍하였습니다.

1.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세대

출애굽 3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처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삿 2:11).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삿 2:13-14). 출애굽 3 세대가 거저 얻어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자유와 풍요가 사라졌습니다. 출애굽 3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가 바로에게 압제를 당한 것처럼 주변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고, 나아가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남겨 주었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출애굽 3 세대의 재앙과 곤경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삿 2:15). 출애굽 3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출애굽 2 세대와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해 주니까 좋은 부모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 많이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으로 이방 문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을까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였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것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5).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어린 디모테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말씀 교육은 7 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비공식적인 성경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씀을 들려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특히 자녀가 왜라는 질문을 할 때를 놓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자녀가 “왜 이런 음식을 먹어요?”라고 묻는 때를 자연스러운 신앙 교육의 자리로 삼습니다.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출 12:26-27).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교회 가야 해요?” “왜 기도해야 해요?” 이 질문을 귀찮아 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앙 교육의 기회입니다. 신앙 교육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묻지 않더라도 억지로 가르치라는 명령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7 세 이전에 억지로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반복적인 신앙 교육은 어릴 때부터 중요합니다. 동시에 어린 자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 역시 신앙 교육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 비로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2. 늦은 훈육의 비극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제대로 배운 말씀은 평생을 함께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가장 잘 배우고, 가장 깊이 새겨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은 평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릴 때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죄가 자라 결국 큰 죄가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실패의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 3:13).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삼상 2:22-24).

그러나 엘리의 책망은 너무 늦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책망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큰 자식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는 어린 자식들이 “삶은 고기는 싫고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요”라고 할 때,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주겠다”고 말하는 대신 그냥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홉니와 비느하스는 커서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간음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딤후 3:15-17)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 네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삼상 2:29-34).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한 날에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만 나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터에 제사장들이 동행하여 백성들을 격려하였지만, 엘리는 흡니와 비느하스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헌데 전장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라는 전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흡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날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삼상 4:11).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어릴 때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은 훈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릴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의 가정 환경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행 16:2).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아니 조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붙들면, 자녀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진짜 유산은 말씀입니다. 어릴 때 심어진 말씀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또한 성경은 자녀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하반절).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3. 성경이 만드는 사람

디모데가 그 증거입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지혜’입니다. 대학보다 먼저, 성공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16 절은 성경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16 절). 성경은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교훈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가르칩니다. 둘째, 책망합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게 합니다. 셋째, 바르게 합니다. 틀어진 것을 바로잡습니다. 넷째, 의로 교육합니다.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꾸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17 절).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잠언도 동일한 원리를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 29:15). 어릴 때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셋째,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자녀와 나누십시오. 식사 시간에 말씀 한 마디를 나누십시오. 잠자기 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말씀 중심으로 세우십시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디모테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릴 때 심겨진 그 말씀이 평생을 이끄는 믿음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자녀의 인생을 붙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